

## 훈민정음과 휴대전화기의 만남, 그 이후...

-정보화시대의 문자로 한글의 그 우수성이 빛을 발산한다. -



寒梅山房主人 白甫

### 유성기를 처음 보고 전등불이 켜지던 날의 감격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필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면소재지인 내 고향 작은 시골마을의 부자인 일가 집에서 당시 유성기라 불리는 오늘의 축음기를 처음 보고 놀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전등도 없던 그 시절이다. 손잡이를 잠깐 감아 돌려서 등글고 검은 빛깔의 음반을 얹어놓으니 돌아가면서 사람과 똑같은 노래가 들린다. 어린 나는 이 작은 유성기 상자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놀란 나는 마냥 신기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일을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전기가 들어 온 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된다. 초가인 작은 우리 집에도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던 그날의 놀라움과 환희와 신기함을 어찌 잊으랴! 당시 남선전기(?)의 면출장소의 주재원은 일본인 쓰루이(鶴井)라는 호인으로 해방될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저녁때에 마을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스위치

를 넣어서 전기 불을 켜주고 아침에는 꺼주었다. 이런 일은 천현길(?)이라는 선배가 대신하기도 하였다. 전기 불이 들어오자 ‘도깨비불’이라고 불렸다. 무엇 보다도 이 도깨비불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데다 밝기가 촛불이나 호롱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밤을 대낮같이 밝혀주었다. 요금은 등수(燈數)로 계산이 되어 월별로 납부하였다. 이 전기불의 밝음을 전 가구의 약70%만이 누리고 나머지 30%는 가난하여 호롱불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기불이 들어옴으로서 맨 먼저 정미소가 몇 군데 생겨나고 생활의 패턴이 일변하였다. 알곡을 디딜방아나 연자방아 또는 물레방아로 찧어서 먹던 것을 ‘고방(우리고향 사투리로 정미소를 ‘고방’이라 불렀다)’에 가서 샅을 현금이나 알곡을 내고 가공을 하였다. 전기불이 들어옴으로서 이런 농촌의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시에 부유층 가정에 아주 드물게 라디오가 들어 왔다. 이 라디오를 나는 해방직전에 ‘술도가’에서 처음 봤다. 내 한 해 선배가 이 술도

가(작은 막걸리양조장)의 급사였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 까 라디오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땅에 꽂아 둔 철사 줄에 소금물을 붓는 것을 보았다. 한 여름의 선풍기도 부잣집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내 뿜고 있었다.

### 전등불이 들어 온 후 농촌의 생활패턴에 혁명이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전화기는 우편국과 무시무시한 일본순사들이 근무하는 주재소에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당시의 우편국은 편지의 집배가 주 임무이지만 전보와 전신환을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해방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 후 취직한 곳이 사법서사(오늘날의 법무사) 사무실의 사환이었다. 청소와 잔심부름, 겨울철의 화로에 난방용 숯불피우기 등이다. 첫 업무실습(?)으로는 정용간 아들이 보낸 전신환을 우편국에서 찾자면 받는 사람의 영수증 란에 주소와 성명을 써 넣어야 하는데 70%(?)이 문맹인 그 시절이라 주소와 성명을 대필하여 주고 약간의 돈을 받았다. 그 다음 일은 전보문안의 대필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전보는 글자 수로 요금이 계산이 된다. 신청인의 조선말(당시의)을 일어로 번역하여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의사전달을 하도록 작문하는 일은 나로서는 어려운 임무였다. 초안을 만들면 어른들에게 결재를 올리면 '어! 장섭이 제법인데...' 하시면서 칭찬을 들었을 때 그 희열을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참고로 당시의 전보문안 하나를 여기에 소개하여 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집으로 오느라'를 '부사망속래'로 줄이지만 한자를 더 줄여서 '부망속래'로 전보를 쳤다. 우편국에서 이 전보를 접수하면 전신부호(모스?)로 송신하여 이 부호를 문자화해서 수신인에게 자전거로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모스 부호에 의한 통신은 간첩들이나 애호가들에게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이 지구위에 살고 있는 수백만 종인지(?), 수천만

종인지(?) 헤아릴 수 없는 생물들 중에서 사람은 그 영장으로서 군림하고 있다. 일전 보도에 의하면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8%가 같다고 하며 2%의 차이를 규명하여 영장으로서의 우수성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비교하여 보면 사람은 모든 능력 면에서 나약하기 그지없는 동물이다. 날기, 달리기, 뛰기, 헤엄치기, 시각, 청각 등등 그러나 인간은 지혜와 손재간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능과 기술로 말미암아 오늘의 과학문명을 일구어 꽃을 피워냈다.

동물과 인간의 의식주 발달을 비교하여 보자. 태초에는 사람과 동물의 의식주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선 한 가지만 비교하여 보자. 까치는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 짓는 기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발전한 게 없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가? 설명이 필요 없지 않는가 말이다. 역사나 과학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필자에게 누가 인류문명사에서 우수한 단 한 가지 발명품을 들라면 나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서슴지 않고 얼른 영국인 와트가 인류최초로 기계적으로 동력을 얻은 '증기기관'이라고 답할 것이다. 누구나 잘 아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기차와 선박 등 운송수단에 이용되어 지구의 시간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혀 놓았다. 풍력과 축력, 수력 등 인간의 힘을 보조해 주던 원시적으로 동력을 얻다가 끊는 물주전자의 수증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발명된 '증기기관'은 그 이후 많은 파생발명품의 원조가 되었고 인류문명의 혁명적인 전기가 된 것은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 증기기관과 전기, 전화와 컴퓨터의 발명은 문명의 혁명을 주도

그 다음은 무엇일까? 나는 전기와 전화기와 컴퓨터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전화를 처음으로 써

본 것은 1950년 6·25전쟁 중이었다. 격전지 중의 한 곳인 포항은 말 그대로 ‘폐허’였다. 전기고 전화고 전화(戰火)로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대와 부대 사이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미군들이 쓰다 물려준 야전용 전화기가 전부였다. 요즘음 전화기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성능이 말이 아니었다. 문득 떠오르지만 잘 들리지 않는 야전용 전화를 가설하는 통신병의 노고는 전투병 이상이였다. 잘 안 들리니까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대는 진풍경을 부대 사무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1952년에 전화(戰火)를 면한 대구에서, 그리고 휴전 후 제대하여 부산에 내려가서 전화기의 통신성과 편의성을 실감하였고 국제전화로 일본과도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즈음에 오늘날처럼 가정집에 전화를 가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꽤 큰 회사에서도 전화 한 대가 고작인 귀물(貴物)이었다.

전화기의 귀물대접은 1950년대의 전후 복구기를 거쳐서 지지부진하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산업화와 아울러서 전화기의 수요가 폭증하여 귀물이 아닌 보물(寶物)대접을 받게 된다. 전화를 가설하기 위해 전화국에 신청하여 전화번호를 따내고 가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금은 ‘남대문시장의 달려장사’와 함께 없어졌지만 ‘전화상’이 전화국 주변에 즐비하였다. 전화기가 재산목록 제1호로 불리던 시절이라 변두리 집 한 채 값인 큰돈을 내면 언제고 전화를 가설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유행어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안 되는 일고 없고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하였다. 돈만 주면 그 비싼 전화를 얼마든지 가설할 수 있었다. 내 아내가 45년 전인 1964년에 청량리 달동네에 약국을 개업하였다. 약국을 개업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으로 전화를 가설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때의 전화번호를 기념으로 지금도 핸드폰은 그 번호를 쓰고 있다. 그리

고 내 주변의 연출을 총동원하여 약국에 공중전화를 가설하였는데 이용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판국이었고 수입도 꽤 짭짤하였다.

## 전화기 한 대 값이 변두리 집 한 채 값의 재산목록 제1호

전화국의 교환수가씨를 불러내어 상대방 번호를 대고 연결하던 시절에서 언제부터인가 교환수가씨들의 예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국제전화만은 더 오래 전화국 교환수의 신세를 져야 했다. 전화기도 다이얼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버튼시대로 전화에 무선시대로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정보화강국으로 뽐내면서 이렇게 단시일에 경이적인 발전은 세계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하고 통화를 못하는 나라가 이 지구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불과 10년 전인 1997년부터는 PCS 휴대전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돼 이동통신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서비스 첫 해 680만 명이던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난 2007년 통계로 3,2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비례당 전화기 보급대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아닐까?

전화기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847~1922)이 1871년에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하여 농아에게 발성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1873년에 보스턴대학의 음성생리학 교수가 되어 소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던 중 전기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계(전화기)를 발명한 해가 1874년이였다. 벨은 이후 전화의 성능향상에 노력했고, 축음기 개량, 비행기 연구, ‘사이언스’지 창간 등 여러 가지 방면에 큰 업적을 남겼다.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지 올해로써 135년의 세월이 흘렀다. 135년 전의 벨이 자신이 발명한 전화기가 오늘날과 같이 진화하리라

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전화기가 들어왔는가를 기록을 살펴보니 구한말 왕실에서 부터라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순종의 아버지인 고종의 능에다 전화를 가설하여 놓고 전화를 걸어서 조석으로 호곡(號哭)하여 지극한 효성을 바쳤다고 한다. 요즘은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문안과 일맥상통하는 일화이다. 전화가 발명된 지 약 28년이 지난 1902년 3월 20일에는 서울 ⇄ 인천 간에 전화통화를 시작하는데 이어 그 해 6월에는 한성 전화소에서 13명의 가입자로 전화업무를 시작했고 1903년에는 인천에도 12명의 가입자가 생기게 됐다고 한다..

## 휴대전화기가 우리나라 정보화강국의 일등공신

전화기가 들어 온 초기 전화기의 명칭이 흥미롭다. 덕률풍(德律風) 또는 득률풍(得律風)이라 불렀는데 전화기의 영어 발음인 '텔레폰'을 한자식(음역)으로 나타낸 말이다. 그리고 어화통(語話筒), '말 전하는 기계'라는 뜻의 '전기기(傳語機)'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전화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유선시대에서 무선시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신의 기능과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지구를 도는 우주선과 달세계에 간 사람과도 통화를 가능케 하였다.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 기능 말고도 문자와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나이의 나는 휴대전화를 쓰면서 신기하고 신통해서 기가 막힌다.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전화기와 컴퓨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 이렇다. 이 기능을 소개하면서 휴대전화기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될

까? 한 가지 내 경험으로 말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내 나이 또래의 늙은이들은 열어 본 분은 한 두 사람에게 지나지 않으니 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답답하다. 나는 전화번호 수첩을 버린 지 오래 되었다. 전화번호 저장기능은 2,000명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찾아내기도 대단히 쉽다. 나는 시각장애 1급이고 국가유공자 2급인데 휴대전화기의 단추 열두 개를 숫자를 보고 누를 수가 없다. 내 가족과 늘 통화하는 곳은 단축키를 만들어 두면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두 자리만 누르면 연결이 된다. 미국친지나 일본 친구에게도 두 자리의 단축키만 누르면 연결일 된다. 6·25전쟁 때의 야전용 전화기를 회상하면 미국과 일본에 통화하는데 음질이 어찌 이리 좋은지 그야말로 도깨비가 요술을 부리는 것 같다. 나는 주위의 친구들에게 늘 '부끄럽게 생각지 말고 손자들에게 용돈 몇 천원을 쥐어 주고 배우라'고 강권을 한다.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컴퓨터도사니, 컴퓨터 1세대니 하고 부른다. 나는 컴퓨터를 수많은 천재들이 바보들을 위해 만든 요술 상자라고 부른다. 심지어 장님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이 글을 어찌 쓸 수 있으리오.

## 한글이 머지않아 정보화의 세계적인 문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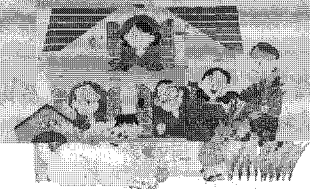
올 해는 한글학회가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한 선각자들이 조선어학회를 발족시킨 지 101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신지 563주년인 해이다. 컴퓨터를 몰랐던 시절에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솔직히 몰랐다. 세종대왕께서 560여 년 전에 컴퓨터의 등장을 미리 예견하시고 한글을 창제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수한 문자이다. 이러한 인식은 휴대전화에 문자를 입력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약 500년 동안 중국의 한자를 진서라 하고 한글을 언문이니, 부녀자들이나 배우는 글자로

천대받아 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表意文字)이고 한글이나 영어는 모두 소리글(表音文字)이다. 중국의 한자 이외에 표의문자가 이 지구위에 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의 글자는 영어를 위시하여 소리글이라고 알고 있다. 영어가 국제공용어처럼 판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영어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이 간자를 쓰다가 영어를 쓰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들의 히

라가나나 가다가나로는 정보화에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서 영어를 원용하고 있다. 언어학자나 국어학자가 아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웃긴다고 할런지도 모른다. 정보화시대에 우리 한글은 영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문자임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나는 우리 한글이 컴퓨터를 만나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쓰는 모든 나라들이 영어가 아닌 한글을 가장 편리한 문자로 찾게 될 날이 머지않아서 올 것으로 확신한다.㉟

## 45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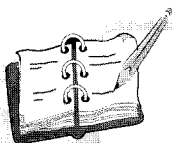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몰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mailto: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